

연예기획

9년여간 ON AIR...최장수 퀴즈프로 '퀴즈 대한민국'

/도전자 6인의 50번째 영웅도전기



“도전하는 사람은 아름답다!” ‘퀴즈 대한민국’ 예심을 통과하고 퀴즈 영웅에 도전장을 내민 출연자들. 왼쪽부터 최고령 도전자 정춘기 씨, 두 번째 도전에 나선 임현주 씨, 초등학생 이수민 군, 예비 치과의사 지영근 씨.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청심환 먹었다”

“탈락이면 끝”

“7전8기쯤이야”

「동화 ‘백설공주’에서 일곱 난쟁이들의 직업은 나무꾼이다? O? X? 정답은 X. 17세기 초 그림 형제의 동화 ‘백설공주’ 속 난쟁이들의 직업은 광부다.」

퀴즈 프로그램의 문제를 맞힌 뒤 영웅이 된 듯한 짜릿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당신도 퀴즈 영웅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 5000만 원부터 2억까지, 최근 지상파와 케이블·위성 TV채널에는 거액의 상금을 내건 다양한 퀴즈 프로그램들이 있다. 학력이나 나이, 성별의 제한이 없어 초등학교 졸업 이후 생계 전선에 뛰어난 40대도, 백발 성성한 70대 할아버지에게도 도전의 문은 열려 있다. 이중 KBS 1TV ‘퀴즈 대한민국’은 2002년 11월부터 시작한 장수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49명의 퀴즈 영웅이 탄생했고, 예심에 참여한 사람만 수 만 명이다.



‘퀴즈 대한민국’ 도전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퀴즈에 임하고 있다.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12세 초등생부터 79세 최고령까지 예상탈락 100명 넘는 못말리는 6인 조조·긴장 숨막히는 승부...긴 한숨... 네명의 탈락자 “패자부활전 있다!”

퀴즈쇼에 빠진 이유? 심장을 뛰게 해주는 가슴 벅찬 도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10대부터 70대까지, 목표는 똑같이 퀴즈영웅
2월24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 TV 스튜디오4의 대가실. ‘퀴즈 대한민국’ 415회 녹화를 앞둔 도전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최고령 퀴즈 영웅에 등극해 기네스북에 오르겠다는 정춘기 씨(79), 주말 부부로 퀴즈 공부에만 매진해 왔다는 김진성 씨(52), 3월 입대를 앞둔 예비 치과의사 지영근 씨(26), 교직 생활 23년째로 상금을 타면 전교생 200명에게 한 톨 쏠겠다는 우영기 씨(45), 그리고 6년 전 출연했다가 초반 탈락했다는 임현주 씨(52)와 초등학생 퀴즈 영웅을 꿈꾸며 울산서 온 이수민 군(12)까지.

여섯 명의 나이와 학력, 사연은 달랐지만 목표는 똑같다. 바로 50번째 퀴즈 영웅이다.

●청심환이 필요해... 녹화 30분 전
녹화 30분 전 ‘퀴즈 대한민국’의 강지숙 작가가 대기실로 들어왔다.

“편하게 도전하세요! 말실수는 저희가 편집할게요. 답을 말 할 때는 ‘답은 000입니다’라고 하시고요. 표정은 밝게, 문제 자막이 뜰 때를 제외하고는 고개를 숙이지 마세요!”

강 작가는 퀴즈에서 사용하는 리모콘을 주

고 연습을 권했다. 녹화 중에는 문제 보안을 위해 성우와 스태프에게 접근이 안 되며, 방송 전까지 녹화 내용을 온라인에 올리면 안 된다는 당부도 했다.

“도전자들 들어오세요!”라는 PD의 목소리가 들리자 두 번째 출연하는 임현주 씨가 급하게 청심환을 찾았다.

●대결은 시작됐다... 전반기

진행을 맡은 조우종 KBS 아나운서가 나온 뒤 녹화가 시작됐다. 전반전은 OX 문제와 객관식 2지선다, 객관식 3지선다 총 3단계로 진행됐다.

1단계 OX 퀴즈가 정성없이 지나간 뒤 도전자들의 긴 한숨이 이어졌다. 대가실에서 가장 표정이 밝았던 우영기 씨가 고개를 가웃거렸다. 최고령 도전자 정춘기 씨의 얼굴도 굳어졌다. 두 사람 모두 “생각보다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푸념도 잠시, 2단계와 3단계가 이어졌다. 전반전 결과 발표 시간. 결국 지영근, 임현주 씨가 후반전에 진출하고, 나머지 네 사람이 탈락했다.

정춘기 씨는 “노병은 죽지 않는다. 인생의 끝은 꼭 퀴즈영웅으로 마무리 하겠다”고 재도전 의사를 밝혔다. 이수민 군 역시 “다음 패자 부활전에 다시 나오고 싶다”며 “친구들에게 자랑거리가 생겼다”고 웃었다.

오후 3시30분, 전반전이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되자 방청석에서 탈락자의 가족들이 달려 나왔다. “엄마, 수고했어!” “아까 그 문제 아는데” 위로와 아쉬움이 교차했다.

●고지가 보인다... 후반전

후반전에 진출한 지영근, 임현주 씨와 지난 주 우승자 이경래 씨(52) 등 세 명의 도전자 시작됐다. 치열한 접전 끝에 3단계 마지막 문제를 남겨 놓고 세 명의 적당금이 공개됐다.

이경래 씨 2500만원, 지영근 씨와 임현주 씨

2000만원. 그런데 마지막 문제를 지영근 씨가 극적으로 맞으면서 이경래 씨와 공동 1위. 동점자 퀴즈가 출제됐다.

“바로크와 신고전주의의 중간에 위치한 양식은 17세기에서 18세기까지 유럽에서 유행하던 것으로...”

문제가 채 끝나기 전에 버저가 울렸다. 이경래 씨였다. 떨어지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답을 얘기했다. “답은 로코코입니다...”

“정답입니다!”라는 조우종 아나운서의 선언과 함께 영웅결정전 진출자가 확정됐다.

●마지막은 자신과의 싸움... 영웅 결정전, 그리고 새로운 도전

2주 연속 영웅 등극에 실패했던 이경래 씨는 “목표는 초과달성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도전에 나섰다. 도움말 얻기 문제 중 2개를 맞힌 그에게 마지막 지문이 공개됐다.

“부처의 설산수도 장소였다고 전해지는 산, 한 번 돌면 이생에서의 업을 소멸시키고 108번 돌면 해탈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티베트의 영혼, 신의 땅 등 많은 이름으로 불리는 이 산의 티베트 명칭은 ‘강 린포체’로 귀한 설산이라는 의미다.”

자신이 없는 표정으로 고민하던 이경래 씨가 입을 열었다. “답은 린비니로 하겠습니까.”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카일라스입니다.”

이번에도 퀴즈영웅에 도전은 실패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밝았다. “답을 들어보니 모르는 문제였어요. 4전5기, 다음 주에 다시 도전하고 싶습니다.”

대화를 다치지 못했다는 이경래 씨에게 퀴즈는 다시 팬을 뛰게 해준 건 학업에 대한 꿈이었다. 그리고 영웅결정전에 못 오른 6인의 도전자에게 퀴즈는 심장을 뛰게 해 주는 가슴 벅찬 도전이었다.



■도전자들의 퀴즈 공부법

신문정독 필수...사전은 끼고 살았죠

임현주 씨는 ‘퀴즈 대한민국’에 출연하기 전 이미 ‘우리말 겨루기’ 우승과 ‘1대100’의 최후 2인자에 진출했던 경력이 있다. 다른 도전자 정춘기, 김진성, 우영기 씨도 수차례 ‘1대100’ 인터넷 예심을 통과했을 정도로 ‘퀴즈 달인’급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도전자 6인이 공통적으로 밝힌 퀴즈 공부법은 무엇일까.

●신문 정독은 필수

신문만큼 상식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이 도전자들의 공통 의견이다. 매일 일간지, 스포츠지를 정독하면 최근 이슈에 대한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정리가 된다고.

●사전은 내 친구

퀴즈 영웅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사전과 친해져야 한다. 특히 다의어의 경우 활용법을 제대로 알아야 어렵게 틀리는 일이 없다. 신문이나 책을 보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사전을 찾는 습관이 필요하다. 새로 안 단어는 메모지 등을 이용해 나만의 암기 비법을 만드는 것도 좋다.

●퀴즈 프로그램 애청자 되기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목표로 한 퀴즈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의 애청자가 되어야 한다. 문제의 유형은 물론, 출제 트렌드도 파악해야 한다. 온라인에는 ‘퀴즈 대한민국’을 비롯해 각종 퀴즈 프로그램의 기술 문제를 분석한 자료가 있으니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심 탈락을 겁내지 마라

도전자 6인이 지금까지 도전한 퀴즈 프로그램 예심의 횟수를 합쳐보니 족히 100회는 넘었다. 이들은 “떨어져도 좋으니 쉬지 말고 예심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1대100’은 인터넷 예심을 통해 도전자들의 참여를 받고 있고, ‘퀴즈 대한민국’은 비정기적으로 오프라인 예심을 열고 있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심리 퀴즈...예능 퀴즈...TV 퀴즈 개성시대

퀴즈프로그램도 개성시대. 뻔한 구성의 프로그램은 시청률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퀴즈프로그램을 보면 이런 경향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문제를 내놓고 출연자와 시청자가 머리 싸움을 벌이는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면서 쇼, 예능 등과의 접목을 통해 재미를 더했다.

KBS 2TV의 ‘퀴즈쇼 사총사’는 중장년층을 출연시켜 상식만이 아닌 ‘지혜와 연륜이 묻어 나오는 퀴즈’로 콘셉트를 잡았다. 함께 나선 네 명이 합심해야 이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KBS 1TV ‘퀴즈 대한민국’은 국내 최고의 퀴

즈영웅을 뽑아 상금을 수여하고, 상금의 50%를 적립하는 이공계 인재육성 프로그램이다. 단계가 올라가면 최고 1000만원짜리 문제도 출제된다.

케이블방송 tvN의 ‘만장일치퀴즈 트라이앵글’은 좀 더 오락적인 요소를 강화했다. ‘돈에 대한 인간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인 퀴즈쇼’가 콘셉트. 안전이 없는 세 명의 출연자가 합의를 통해 퀴즈를 풀고, 배분

물이 다른 상금을 나누어 갖는 심리 퀴즈쇼이다. 남침석의 능숙한 진행도 인기에 한 몫하고 있다.

퀴즈를 예능에 접목시킨 프로그램들도 있다. SBS의 ‘스타주니어 보이뱅크’는 부모와 자녀의 심리를 퀴즈 방식을 빌어 진행하며, MBC의 ‘세바퀴’는 토크에 퀴즈 아이디어를 끌어들이 시청자들에게 독특한 재미를 주고 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